



- 송실대법대, 서울대 행정대학원졸
- 전주시장·광주시장
- 국무총리비서실장
- 내무부차관
- 한국토지공사 사장

양계사료값 1.8%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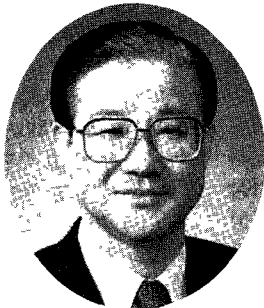
지난 16일 이후 사료업계는 사료가격을 평균 1.8% 인상하였다.

이 같은 조치는 환율급등 및 대두박 등 원료 값 상승으로 경영압박을 받고 있어 부득이 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업계 관계자들은 밝히고 있다.

11개 사료회사를 대상으로 사료가격 인상을 조사한 결과 평균 1.87%로 최저 1.32%에서 최고 2.23%까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서 양축가들은 생산비가 상승하여 경영난이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신임 농림부장관에 이효계씨 임명



◁ 이효계 농림부장관

지난 5일 정부 개각단행에 따라 신임 농림부장관에 이효계씨가 임명되었다.

신임농림부장관은 '61년 고시 13회 행정과에 합격후 30여년동안 주로 내무행정 분야에 근무해온 내무관료 출신이다.

치밀한 업무처리, 풍부한 실무경험을 갖고 있고 특히 농정에 탁월한 식견을 갖추고 있다는 평이다.

■ 약력

- 전남여수 35년생

양계사료 값 인상율

업 체	인상율(%)
우 성 사 료	2.07
퓨 리 나 코 리 아	2.04
미 원	1.76
대 한 제 당	2.1
대 주 산 업	1.32
두 산 음 료	2.23
신 촌 사 료	1.52
한 일 사 료	1.63
천 광 사 료	2.5
영 남 제 분	1.75
대 한 사 료	1.49
평 균	1.87

단미사료협회

단미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단미사료협회(회장 박석남)가 그간 줄기차게 주장해온 “단미사료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을 골자로한 조세감면 규제법중 개정법률안이 지난 7월 30일 여야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되어 혜택을 받게 되었다.

동협회는 6월 10일 국회재정경제위원회 여야 3당간사인 신한국당 차수명 의원, 국민회의 김원길 의원, 자민련 김병명 의원을 공동대표로 하여 여야 국회의원 72인 서명을 받아 “단미사료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에 관한 청원”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바 이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

통과된 조감법은 정부(법제처)에 통보하고 법제처는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재가를 받는 즉시 공포 된다.

이로써 양축가에게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국영농법인 중앙회

세미나 개최

한국영농법인중앙회(회장 오효근)는 지난 26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영농법인 운영실태 및 발전방향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 제1주제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영농법인의 역할 및 과제로 김병태 영농법인 경영연구소장이 발표하였고, 제2주제 영농법인 운영실태와 발전방향을 김정호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하였다.

주제발표후 사례발표와 토론회 종합토론회가

있었다.

이 행사는 농수축산신문이 주관하였고, 농림부, 농협중앙회, 축협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농기계학회, 농업기술자협회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수의과학연구소

가축질병 방제 국제 심포지움

수의과학연구소(소장 이재진)는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동 소강당에서 생물공학기술을 이용한 가축질병 방제전략에 관한 국제 심포지움을 가졌다.

이날 심포지움은 가축질병의 효과적인 방역을 위한 차세대 예방약과 진단제 등 첨단기술 개발 분야의 국내외 권위자가 대거 참여하여 각국의 연구개발 현황과 연구전략 등에 관하여 토의하였다.

심포지움은 선진국의 생물공학기술을 이용한 차세대 첨단백신 개발전략, 최근 새로이 문제시 되고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의 방제대책과 방향제시에 관하여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또한 동소에서 개발한 첨단 가축질병에 관한 진단기술 시연회도 있었다.

축협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시연회

축협중앙회(회장 송찬원)는 지난 12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중앙회 2층 강당에서 시연회를 가졌다.

축협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축협사업, 축산소식, 금융, 목우촌, 축산백과 등 다양한 자료와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축협 홈페이지 주소 [http : //www.nlcf. co. kr](http://www.nlcf.co.kr)

기쁨두배 할인코너 설치

동회는 지난 9일 전국 4백 30개 생활물자판 매장내 별도의 '기쁨두배 할인코너'를 설치하였다.

기쁨두배 할인코너를 설치한 목적은 대형유통업체와 외국계 할인점들의 진출에 대비 소비자에게 저가 매장으로서는 축협 슈퍼의 이미지를 강화시키고 할인점 이용이 어려운 농촌지역에 혜택을 부여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기쁨두배 할인코너 할인율은 최고 40%이다.

축산신문

축산물 가공업무 일원화 방안 간담회 개최

축산신문(대표 윤봉중)은 지난 19일 팔레스 호텔에서 축산물 가공업무 일원화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다각적인 방안이 제시되었는데 특히 축산물 일원화는 생산자에게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이익을 줄 것이라는 것을 홍보하고, 복지부에서 주장하는 반대논리에 대처할 수 있는 논리적인 답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참석자는 김남용 회장(낙농육우협회), 노영한 전무(대한양돈협회), 임일영 회장(경기대한수의사회), 정영채 교수(중앙대), 이규성 전무(대한양계협회), 박수영 상무(축협중앙회), 이우재 의원(신한국당), 윤봉중사장(축산

신문)

농림부 육성조합선정

지난 7월 23일 농림부는 경영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47개 업종조합중 20개(양계 5, 양돈 5, 낙농 10) 조합을 육성조합으로 선정하였다.

이 같은 조치는 축협조합의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조합장, 간부직원의 경영마인드 및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축산업의 규모화, 전업화와 축산물 및 금융시장의 개방 등 경영여건이 나빠지고 있어 축협의 경영상태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축협이 축산업 경쟁력 제고의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에 농림부는 축협조합 육성 대책을 수립. 시행한 것이다.

축협조합 육성자금은 1,000억원을 조성하는데 축산발전기금 500억원과 축협자체자금 500억원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다.

양계부문에서 선정된 조합은 충북양계조합, 서울경기양계조합, 대구경북양계조합, 광주전남양계조합, 전북양계조합으로 대전 충남양계조합은 제외되었다.

이중 충북양계조합은 육성조합중 경영능력과 사업능력을 인정 받아 업종조합 중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얻었다.

육성조합으로 선정된 양계 조합들은 그 동안 자금이 부족하여 미루어 왔던 양계산물브랜드화, 도계품 직영 판매소, 부회장 신축, 종계확보, 기본 점포 확보 등 경제·신용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게 되었다.